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4토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0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0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튜브생활제	40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5 KBC 생활뉴스
11 30 독한인생 서민갑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춘춘춘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40 채널A 뉴스토크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55 이웃집 찰스(재)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 매거진 2580(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월간드라마(재)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푸르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00 TV 이고리(재) 50 콘서트 필레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여마의 탄생(재)	2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30 영상앨범 산(재)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00 MBC 뉴스 10 내사랑 동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푸르기 탐구생활 스페셜(재)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40 TV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 그래픽	10 외계가족 즐리폴리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빛>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달콤한 처녀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10 내조의 여왕(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결혼이야기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드라마 <편지>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 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30 모쿠드라마<싸인>(재) ①:40 닥터 지바고(재)	20 T 타임 50 알약톡 ①:10 다국공감(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특파원 현장보고(재) ①:25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빛>(재)	15 MBC 뉴스24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베스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20:40 다크 오늘
07:00 코코몽(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살라미랑 모로코>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팔공산>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라임 <한국인과 영어>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달려주세요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굼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섬문화 기행>
08:20 두다다콩(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잉이(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08:35 방귀대장 뽀잉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08:50 굼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꼬마버스 타요	
09:05 원더 볼츠(재)	14:10 소프트웨어 놀자	17:45 두다다콩	
09:20 출동 슈퍼원스(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12:10 2016 수능개념 <윤영주의 영어>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에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오랜지의 영어>	14:50 <주혜연의 영어>
02:30 수능길잡이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수학 I>	16:3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미적분과 통계기본>	17:20 <오광석의 수학 I>
<영어특해 유형>	18:10 고등에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박근영의 미적분 I>	19:20 <최은진의 수학 I>
<차현우의 미적분II>	20:00 <김소연의 수학II>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50 <주혜연의 영어>
<독서와 문법>	21:50 수능길잡이
10:00 고등에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30 리얼체험 탐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20 2016 수능개념 <주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2015 공민증가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30 검정고시대비 강좌	16:50 학교교육 드라마 (어린이 승자병)
09:00 출제문 수학 EBS MATH	17:20 백점공공 합격수학I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백점공공 합격수학II
<수학I>	18:00 TV 중학 <국어⑤⑥>
<역사 I>	18:40 <수학 3(성)>
<국어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수학 2(성)>	20:00 EBS 기획특강
12:30 실전 취업가이드	20:50 EBS 기획리포트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국어①>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국어②>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국어③>
<사회 1>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필독 <사회1>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24:00 왕기초 중학 <수학1>

“소름끼치는 역할에 새로운 재미 느껴”

최명길, SBS '편지'서 카리스마 발산

“엄마 역할로 편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도 좋지만, 이렇게 소름끼치는 연기도 너무 즐겁습니다.”

‘소름 끼치는’ 느낌은 시청자만 받는 게 아니었다. 한지 앞을 모르는 권모술수의 향연이 펼쳐지는 SBS TV 월화극 ‘편지’. 이 드라마를 보는 많은 시청자가 피 튀기는 권력다툼에 ‘소름 끼친다’는 감상평을 내놓고 있는데, 윤지숙 법무부장관 역으로 그 전장에 나가 카리스마를 뽐내는데 최명길(53)도 그렇다. 아, 그런데 호칭이 애매해졌다. 윤지숙은 ‘편지’의 1회부터 지난 27일 방송된 13회까지는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러다 총리후보자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총리내정자까지 됐다. 하지만 영전을 앞두고 지난 7년간 애써 덮어왔던 아들의 병역비리가 드러나면서 총리 문턱에서 낙마했다.

2일 방송될 ‘편지’의 14회부터 윤지숙은 ‘전 법무부장관’이자, ‘전 총리내정자’가 된다. 이에 대해 최명길은 “윤지숙이 이대로 사라질 것인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꺼진 불도 다시 켜야하는 상황이다. 나도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겠다”며 웃었다. 14회 대본을 기다리고 있던 그를 최근 인터뷰했다.

“대사 한마디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한번 내뱉는 말이 반드시 돌아오기도 하고, 꼭 그것과 관련된 일이 뒤에 벌어지거든요. 배우들끼리 대본을 보면서 ‘내가 너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라는 식으로 농담진반 대화를 나눴어요. 첫회 자체가 15회 정도의 이야기를 앞에 깔아놓고 시작할 격이었고, 그 이후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드라마 대본보다 어렵지만 정말 기다려지는 대본입니다.”

최명길이 연기하는 윤지숙은 극 초반만해도 시청자가 마음을 기댈 청량하고 올곧은 인물의 표상이었다. 뱃속까지 부패한 이태준(조재현 분)이 검찰의 수장이 되는 것을 막고 싶다는 그의 강한 의지는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웬걸,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에서 병역비리는 피할까 여지가 없다.

“초반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장관이라는 자린 내 몸을 더럽혀서 세상을 만드는 자라하는 거. 내 몸 깨끗하게 사는 동안, 젊은 검사들이 다쳤어요’. 왜 이런 대사가 나올까 의문이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게 윤지숙을 지금까지 끌고 온 힘이었어요. 윤지숙은 자신이 더럽혀져야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지숙이 아들의 병역비리를 덮은 것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장관직에 계속 있어야, 이태준 같은 인물을 막고 새로운 검찰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거죠. 또 병역비리는 윤지숙이 저지른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윤지숙을 애써 ‘변호’하던 최명길은 “윤지숙이 아들 문제 하나 외에는 모든 검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왔고,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안타깝기도 했다. 그렇게 따지면 (윤지숙 잡겠다고 나선) 박정환은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니냐”며 웃었다.

그는 ‘편지’가 그리는 세상에 대해 “여러가지 실제 현실 속 일들이 드라마 곳곳에 녹아져있지만 결국은 드라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라고 생각할 만큼 현실에서 많은 것들을 차용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드라마가 현실 그대로는 아니죠. 또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드라마 앞에 뜨는 마지막처럼 이런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죠.”

윤지숙이 여성 법무부장관이기에 감금실 전 장관을 떠올릴



수도 있었지만 윤지숙이 강 장관을 그린 게 아닌 것처럼, ‘편지’의 이야기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 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드라마가 마지막에는 누군 통해서든 따뜻한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가 희망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엄마역, 힘없는 서민 역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좀 강한 역을 하면 더 기억해주시는 것 같다”면서 “사극을 하면서 권력다툼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현대극에서 하니 또 새로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인 남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편지’를 보는 느낌도 남다를 듯했다.

최명길은 방송 중인 지난 19일 모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렀다. 상가에 여야 정치인들이 몰리면서 그가 정치인의 아내라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기도 했다.

상을 치르고 바로 촬영장에 복귀해 윤지숙으로 돌아온 그는 “신나게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을 만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재미있고, 멋진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차좁마’ ‘바깥양반’ 깨알 재미에 시청률 쑈~욱

tvN ‘삼시세끼’ 14.2% ... ‘정글의 법칙’ 15.7%로 예능 최강

나영석 PD의 밤상 예능 tvN ‘삼시세끼-어촌편’이 방송 2회 만에 시청률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tvN은 닐슨코리아 자료를 인용해 지난 30일 밤 9시45분부터 방송된 ‘삼시세끼-어촌편’ 2회가 케이블·위성·IPTV 통합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10.8%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2%까지 치솟았다.

이날 나 PD가 연출한 외국 배낭여행 프로젝트인 ‘꽃보다’ 시리즈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금까지 ‘꽃보다’ 시리즈가 세운 최고 기록은 2탄인 ‘꽃보다 누나’ 1회가 기록한 평균시청률 10.5%였다.

1회에서는 갑작스럽게 하차한 장근석 촬영 분량을 맡으며 도려낸 탓에 중간 중간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2회에서는 외딴섬 만재도에서 차승원과 유해진 두 사람이 빛어내는 화학작용으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차승원은 집에서 요리를 도맡아 하는 ‘차좁마’로, 유해진은 식재료를 구해 오는 ‘바깥양반’으로 분해 깨알 같은 재미를 줬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한 끼 식사를 차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서진과 옥택연이 출연한 ‘농촌편’보다 역동적인 그림을 만들어 냈다. 호흡을 따던 유해진이 능청스럽게 뱃사람 연기를 선보이고 제작진이 이를 KBS 휴먼다큐 ‘인간극장’ 식으로 편집한 ‘어부극장-종합총각 참마파씨’ 부분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장근석을 대신해 급히 투입된 배우 손호준은 연에게 대선배들 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면서 특유의 순박한 매력을 보여줬다. 강아지 산체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주는 모습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한편 손호준의 겹치기 출연 논란이 일었던 SBS TV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 1회도 15.7%를 기록해 금요일 밤 예능 최강 자임을 증명했다. 부활한 MBC TV의 기성가수 경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1회 시청률은 6%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일(음 12월 14일 己酉)

子	48년생 핵심 골격이 수렴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60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84년생 실수한다면 의외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62, 33	午	42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 하느니라. 54년생 자애로 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66년생 무의식중에 한 연행이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성공의 길은 험하고 험하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25, 09
丑	49년생 묵묵히 앞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61년생 하던 일을 중단시킬만한 이변이 발생한다. 73년생 마지막 까지 정성을 들여야겠다. 85년생 정도의 차이가 심하여 도저히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34, 94	未	43년생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임해야 속이 편할 것이다. 55년생 천재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인된다. 67년생 시기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79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해 두라. 행운의 숫자 : 32, 46
寅	38년생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다면 서두르게 될 것이다. 50년생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62년생 재물운에 운택한 기운이 돌고 있다. 74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86년생 합리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75, 56	申	44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56년생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미리 나아가 맞이하라. 68년생 난해한 문제부터 타개하는 것이 무방하다. 80년생 일단, 최선을 다 한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52, 81
卯	39년생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일이다. 51년생 가법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리라. 75년생 뿌린 대로 거두리라. 87년생 끝이 싱거울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8, 76	酉	45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57년생 대단한 길사가 펼쳐지면서 영예롭겠다. 69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81년생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7, 53
辰	40년생 너무도 비슷하여 혼란에 빠질만하다. 52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64년생 난관이 보인다. 76년생 인식하는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01	戌	46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58년생 지나치다보면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70년생 무난한 결과에 이르렀다. 82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84, 87
巳	41년생 단 번에 판기를 날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53년생 한없는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65년생 효율성의 시각에서 가닥을 잡는 것이 생산적이라. 77년생 계속 끌리더라도 절대로 지나치면 아니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5, 24	亥	47년생 하나로 통렬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59년생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나 직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90, 7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